‘반값 강진 관광’으로 지역 위기 돌파한다

내년 60억 예산 확보…5만원 이상 사용객 ‘지역화폐’ 환급
체류 늘려 소비 유도…숙박·음식점 매출 증대 등 효과 기대

강진군이 내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지역 위기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21일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라는 악재와 지방소멸 등 위기 속에서 이를 돌파할 강진만의 전략으로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추진을 선언한 데는 관광 등 3차 산업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의 농특산물, 가공품까지 소비를 촉진해 강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강 군수는 강진군 주력산업인 1차 산업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와 시장변화에 발맞춰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농어업과 축산·임업인이 행복한 강진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기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생산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강 군수는 “강진 반값 여행은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이들의 다양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그 효과는 자연스레 관광객의 체류 시간 증대로 이어져 숙박업소는 물론 음식점, 소매점까지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강진군은 내년도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예산은 강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지에서 5만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40%를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에 쓰일 예정이다.

방문 전 신청한 관광객들에게 사전에 상품권 등을 10% 할인해 주는 만큼 최대 반값 여행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관광객들은 반값 여행을 하고, 강진사랑상품권을 받은 여행객들은 다시 강진 농수산물 등을 사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상품권은 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췄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1차 산업을 촉진하고 끌어주는 주는 것은 관광이며 1차, 2차, 3차 산업을 융합한 6차 산업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축제 마케팅추진단을 설치해 축제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업무와 외식업 업무를 축제와 통합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서로 연결돼 돈 버는 축제경제가 되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유례없는 세수 감소…나주시 내년 예산 638억 줄여

9396억 편성…지방교부세 500억 이상 줄어든 탓
신규 사업 보류·업무추진비 삭감 등 자구 노력 강화

나주시는 관광·에너지·농업, 교육·복지 등 ‘민생안정·미래성장동력 육성’에 2024년도 본예산 9396억원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20일 나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사업을 설명하고 9396억원 규모 2024년도 본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8798억원, 특별회계 59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34억원보다 638억원(6.4%) 감소했다.

본예산안 감소는 나주시 세입 약 4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500억원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라 신규 사업은 보류하고 연내 마칠 수 있는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20% 이상 삭감하는 등 내부 자구노력을 강화했다.

나주시는 국비 지원이 없음에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75억원을 편성했다.

노인 복지예산으로는 ▲동부노인복지관(옛 남평재가복지회관) 증축 시설비 10억원 ▲노인 목욕이·미용권 지급(분기별 2만원) 13억원 ▲100세 안심 경로당 180곳 운영비 1억5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5억원,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2억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정비에 2억원을 책정했다.

전입 청년 근로자·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0원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35억원을 편성해 임대주택 공급 수를 올해 30호에서 내년 1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500만 나주관광시대’를 목표로 한 관광 산업 분야엔 340억원을 배정했다.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내년 700명 확대 도입을 목표로 7억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 나주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32명에서 올해 366명으로 10배 뛰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의 가치를 높이는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주시 2024년 본예산안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19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확정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장성 주민들 훈훈하게 장성군 관계자가 동절기를 맞아 지역주민 12세대에 전달할 땔감을 트럭에 싣고 있다. 장성군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직접 배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땔감을 지원하고 있다. 사용된 땔감은 올해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한 나무들이다. 장성군은 숲가꾸기패트롤, 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을 채용해 버려진 나무들을 땔감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장성군 제공〉

화순군 ‘스타기업’ 3곳 지정…‘100대 기업’ 육성 박차

2025년까지 맞춤 지원

화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화순군 스타기업’ 3개사를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화순군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 신규 스타기업 3개사를 초청해 지정서와 현판을 전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순군 스타기업’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달걀·두부 등을 생산 판매하는 구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대표 오성주)와 수처리 계측 제어장치 제작 전문기업 이아이시텍㈜(대표 박순애), 치과 제품 전문 생산 기업 ㈜디엑스엠(대표 정두락)이다.

화순군은 오는 2025년까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화순군 ‘100대 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스타 기업 육성 사업’에서는 화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벌여 기술 경쟁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0일 군청에서 ‘2023 화순군 스타기업’에 선정된 3개사에 지정서·현판을 전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이들 기업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는 시제품 제작과 판촉 등을 돕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군을 대표할 100대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기업 수요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해 기업의 만족도 높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스타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축산 농가 사료 성분 분석 서비스 운영

담양군은 축산 농가가 가축에게 시기별로 적절하게 영양소를 공급하도록 ‘사료 성분 분석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자가배합 섬유질배합사료(TMR) 분석 품질 고급화 시범사업’을 통해 사료 성분 분석 장비 13종을 구축했다.

최근 들어 국제 곡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료비 부담이 커진 한우 농가들은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자가배합 섬유질배합사료(TMR)에 눈을 돌리고 있다.

‘TMR(Total Mixed Ration) 사료’는 가축이 하루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도록 조사료와 농후사료, 각종 부산물과 첨가제 등을 혼합해 급여하는 완전혼합사료를 말한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료의 수분,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섬유소(NDF·ADF) 등 6가지 항목을 분석해줄 예정이다.

사료 성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기별 적정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 지도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사료 성분분석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TMR사료 500g 정도를 담아 축산업등록증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축산관리실을 찾으면 된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가 22일부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성분 분석을 지원한다. 분석 장비. 〈담양군 제공〉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축산 농가가 안전하게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조사료 품질 분석과 등급판정, 축사 유해가스 측정, 고온기 환경측정, 초음파 육질 진단, 송아지 설사병 검사, 한우 조기 임신 진단 꾸러미 제공 등이 진행되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국제 친환경 인증’ 장흥 무산 김 본격 생산

김 종자 ‘장흥 흥초’ 안정적 보급
양식 어가 생산성 향상 기대

장흥군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장흥 무산 김’ 생산에 돌입했다.

‘장흥 무산 김’은 유·무기산을 쓰지 않는 친환경 김 상표이다.

지난해에는 채묘 초기에 수온 상승에 따른 갯병 발생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올해는 비가 적당히 내리고 10월 초 수온이 24도까지 떨어지면서 생육 상태가 양호하다고 장흥군 측은 설명했다.

이달 현재 채묘 틀마다 김이 골고루 붙었으며, 성장 속도도 빠른 편이라고 어민들은 전했다.

장흥군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특허 출원한 김 종자 장흥 흥초 1, 2, 3호를 올해부터 어민들에게 공급해 시험 양식에 들어갔다.

장흥 흥초 1, 2, 3호도 성장이 빠르고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김 사상체를 구매, 공급해 왔던 김 종자가 장흥 흥초 1, 2, 3호로 대체된 것이다. 지역에 적합한 김 종자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게 되면서 무산 김 양식 어가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장흥군 측은 기대했다.

장흥 무산 김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다. 친환경 김 양식 현장. 〈장흥군 제공〉

장흥 무산 김은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친환경 방식으로 양식 생산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국제 유기인증인 ASC(수산양식관리협의회)·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을 동시에 받았다.

ASC 인증이란 2010년 세계자연기금(WWF)과 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IDH) 비영리 국제기구로 설립한 양식관리협회(ASC)가 해양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인증제도다.

김성 장흥군수는 “무산 김의 생산과 유통, 판매 활성화를 통해 지역어업인들의 소득 증가를 도모할 것”이라며 “국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만큼 수출 실적을 높이는 데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꿈꾸다-바리스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관계자들이 교육 수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청소년 진로 탐색…함평 ‘꿈꾸다-바리스타’ 성료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3월부터 14~18세 대상 20회 진행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탐색과 바리스타 직업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운영한 ‘꿈꾸다-바리스타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한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내 14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3월 시작해 18일까지 총 20회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전문자격증 취득 과정을 함께 운영해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의 시간이 됐다는게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의 설명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내가 관심있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알아보고,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어 전문가 다운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욱종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기반으로 하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맞는 진로선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